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土)	3(日)
	
흐리고 한때 비 13/21℃	구름많고 비 13/22℃

News

- 신문엑스포 개막 ②
- 탄광 막장서 캐낸 희망 ③
- 박지성 EPL 출격 채비 ⑩



Entertainment

- 6년만에 컴백 박지운 ⑦
- 연휴 블루버스터 빅뱅 ⑩

Wellbeing

- 친환경 실내 인테리어 ⑤



Books

- 아버지란 무엇인가 ⑧
- 인도의 역사와 문화 ⑨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있는 힘 다해 달려라!

5월 첫 날은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했다. 광주지역 초등학교들이 1일 근로자의 날에 운동회를 개최, 어린이들은 모처럼 일터에서 벗어난 부모 앞에서 장기를 펼쳐 보였다. 화정초등학교 운동회 달리기에서 친구보다 앞서기 위해 이를 악문 채 달리는 어린이의 표정이 귀엽기만 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盧 前 대통령 사전영장 청구 검토

검찰 다음주중 결정...권양숙여사 재소환도 고려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 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다음주 중 반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기소 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2면>

이인규 중수부장과 수사팀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의견을 정해 임재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임 총장은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 다음주

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기소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문조사 전반에 걸쳐 “노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1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예들을 도와주라(500만 달러)”고 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판단, 다음주 중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 중이다. 임 총장은 대검 내부 여러 파트에 구속·불구속 기소의 장단점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하는 한편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판단

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대질신문하기로 결론짓고 박 회장을 10시간 대기시켰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 시간도 늦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토하고 소환 이튿날인 1일 새벽 2시10분께 전날 타고 온 버스를 다시 이용해 병마마을로 돌아갔다.

검찰은 박 회장에서부터 2007년 6월 29일 정 전 비서관이 받아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와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송금돼 장남 건호씨와 함께 쓴 500만 달러는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돈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통화내역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전화로 요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과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기소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가 2006~2007년 미국에 체류하던 장남 건호씨와 딸 정연씨에게 다른 사람을 시켜 수차례에 걸쳐 생활비를 송금하고 건호씨가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을 지원하는 등 30만 달러 이상을 건호씨에게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권 여사가 이 과정에서 돈을 빌려쓰고 박 회장의 100만 달러로 충당했는지 의심하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이 “모른다”고 진술함에 따라 권 여사를 재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어질 ‘박연차 게이트’ 3라운드 수사 선상에는 박 회장과 수상한 돈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과 라웅찬신한금융지주 회장, 또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관사·검사·경찰관 등이 올라 있다. /연합뉴스

속조치를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4년간 쌀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부당수령자 1만9천242명 가운데 관외경작자(농지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에 살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는 8천847명, 관내 경작자는 1만395명이었다. 또 행정안전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진신고를 받아 확인한 결과, 부당수령자는 모두 2천452명이었다. /연합뉴스

직불금 부당수령 19,242명

공직자가 2,452명

2005~2008년 사이 쌀직불금 수령자 130만3천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수령자는 전체의 1.5% 수준인 1만9천2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5만7천452명 중 부당수령자는 4.3%인 2천452명이었고, 부당수령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은 11명이었다.

정부는 1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 및 후

전남서도 ‘신종플루’

멕시코 다녀온 30대 남자 자진신고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인 ‘인플루엔자 A(H1N1)’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에서 30대 남자가 인플루엔자 A 감염이 의심된다며 자진신고해 와 보건당국이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A시에 사는 34세 남자가 최근 발열과 감기 증상이 있다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와 이 남자의 혈액을 채취해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남자는 지난달 5~20일 멕시코에 다녀온 뒤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지난달 28일 이후 감기 증상을 보여 이를 뒤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자는 현재 자신의 집에 격리돼 타미플루 등을 투약한 상태이며,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만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한편, ‘인플루엔자 A(H1N1)’ 첫 추정환자인 50대 여성(51)과 함께 사는 여성(44)도 추정환자인 것으로 밝혀져 국내 첫 2차 감염 사례가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신종플루=그동안 논란이 됐던 ‘돼지 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라는 명칭을 보건복지부가 법적 공식 명칭으로 ‘신종 인플루엔자’로 결정했다. ‘신종플루’는 그 약칭이다.

또 첫 추정환자와 접촉하지 않은 남성(57) 1명도 추정환자인 것으로 진단돼 현재까지 추정 환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다. 첫 추정환자의 감염 여부는 2일께 확진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환자가 음성 반응을 보여 정상 판정을 받게 될 경우 ‘2차 감염(사람끼리 감염)’을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신종플루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줄어드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날 오전까지 감염이 의심스럽다고 신고한 59명 가운데 추정환자 3명, 검사 대상자 18명이 발생했고 나머지 38명은 정상으로 판정됐다.

첫 추정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337명 가운데 182명에 대한 검사가 끝났으며, 모두 정상인 것으로 진단받았다. /최현배기자 cki@

F1 지원법 6월 통과 확실시

전남도의 최대 현안인 포플러 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아쉽게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F1 지원법은 여야 합의로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달 30일 여야는 F1 지원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뒤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하지만 본회의가 이날 저녁 9시에 개최된데다 쟁점법안 처리 등으로 표결이 지연, 결국 자정이 넘기며 4월 임시국회가 자동 산회돼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F1 지원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오는 6월 임시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F1 지원법에는 국가가 대회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 3천400억원 규모의 경주장 건설비에 대한 정부 지원의 길이 열렸다.

또, 대회시설 사업은 지방재정법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심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전남도로서는 상당한 시간을 벌게 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3세기스타·세기보청기

1338-9400 / 062-222-8111